

성경신학 개론

저자: 리차드 프렛 2 세 (Th.D., Harvard)

역자: 이창배 (Ph.D., UCLA)

번역 후원: 김문자 (Aunt-In-Law)

제 1 강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



THIRD MILLENNIUM
MINISTRIES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 2012 by Third Millennium Ministrie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for profit, except in brief quotations for the purposes of review, comment, or scholarship,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nc., 316 Live Oaks Blvd., Casselberry, Florida 32707.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l Scripture quotations are from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Copyright © 1973, 1978, 1984, 2011 International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of Zondervan Bible Publishers.

ABOUT THIRD MILLENNIUM MINISTRIES

Founded in 1997,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s a nonprofit Christian organization dedicated to providing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In response to the growing global need for sound, biblically-based Christian leadership training, we are building a user-friendly, donor-supported, multimedia seminary curriculum in five major languages (English, Spanish, Russian, Mandarin Chinese, and Arabic) and distributing it freely to those who need it most, primarily Christian leaders who have no access to, or cannot afford, traditional education. All lessons are written, designed, and produced in-house, and are similar in style and quality to those on the History Channel[®]. This unparalleled, cost-effective method for training Christian leaders has proven to be very effective throughout the world. We have won Telly Awards for outstanding video production in Education and Use of Animation, and our curriculum is currently used in more than 192 countries. Third Millennium materials take the form of DVD, print, Internet streaming, satellite television transmission, and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ministry and to learn how you can get involved, please visit <http://thirdmill.org>.

성경신학 개론

제 1 강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

목차

I. 서론 (Introduction)	1
II. 오리엔테이션 (Orientation)	2
A. 역사적 분석 (Historical Analysis)	3
B. 하나님의 행위 (Acts of God)	4
C. 신학적 사색 (Theological Reflection)	6
1. 사실적 역사 분석 (Factual Historical Analysis)	6
2. 신학적 역사 분석 (Theological Historical Analysis)	7
III. 발전들 (Developments)	8
A. 문화적 변화들 (Cultural Changes)	8
B. 신학적 반응들 (Theological Responses)	9
1. 비평주의적 성경신학 (Critical Biblical Theology)	10
2. 복음주의적 발전들 (Evangelical Developments)	13
IV. 역사와 계시 (History and Revelation)	17
A. 행위와 말씀 (Act and Word)	17
1. 행위 계시 (Act Revelation)	18
2. 말씀 계시 (Word Revelation)	20
3. 상관 관계들 (Interconnections)	23
B. 개관 (Contours)	27
1. 목표 (Goal)	27
2. 상승과 하락 (Rising and Falling)	29
3. 유기적 발전 (Organic Development)	31
V. 결론 (Conclusion)	36
VI. 연구의 길잡이 (Study Guide)	37
A. 복습을 위한 질문들 (Review Questions)	37
B. 적용을 위한 질문들 (Application Questions)	37

성경신학 개론 (Building Biblical Theology)

제 1 강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 (What is Biblical Theology?)

I. 서론 (INTRODUCTION)

사람들을 처음으로 만날 때, 우리는 자주 그들에 대하여 소위 “첫 인상”을 갖는다. “첫 인상”이란 어떤 사람을 처음 알게 된 순간에 그 사람에 대해 갖는 견해이다. 그러나 관계가 깊어지며 우리의 친구들에게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개인적인 과거의 일들을 물어봄으로써,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의 삶을 이루었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하여 알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첫 인상을 넘어서는 많은 통찰들을 얻는다.

여러 가지 점에서 똑같은 일이 기독교 신학에도 일어난다.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써 우리는 대개 신약에 대한 첫 인상에 주로 의지하여 신앙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역사 곧 우리의 신앙이 창세기의 처음 장들로부터 요한 계시록의 마지막 장들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배움으로써,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다.

본 강의는 **성경신학 개론**이란 강좌의 첫 강의이다. 이 강좌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성경의 전체 역사 동안 발전했는가를 탐구하는 신학의 분과인 성경신학으로 알려진 과목을 연구할 것이다. 본 강의의 제목은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이다. 이 첫 강의에서 우리는 이 강좌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를 인도할 많은 근본적인 문제들을 연구할 것이다.

본 강의는 세 가지 중심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성경신학에 대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성경신학이란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성경신학의 발전을 살필 것이다. 이를 통해 성경신학이 여러 세기에 걸쳐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성경신학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역사와 계시의 상관 관계를 연구할 것이다. 그럼 성경신학에 대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자.

II. 오리엔테이션 (ORIENTATION)

신학자들은 “성경신학”이란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해 왔다. 이 용어의 사용들이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분포 범위를 따라 어디에 속하는지를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성경신학은 보통 성경의 **내용**에 충실한 신학을 의미한다. 이 경우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신학이면 어느 신학이든 성경신학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같이 보다 폭넓은 의미에서 모든 신학이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복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성경의 내용에 충실하기를 원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쓸라 스크립투라(“오직 성경” *Sola Scriptura*)라는 교리의 입장에 서있기 때문이다. 이 교리는 성경이 모든 신학적 문제들의 최고이자 최종의 심판자로 군림한다는 교리이다.

그러나 현대의 신학자들은 또한 훨씬 더 좁은 의미 곧 보다 더 전문적인 의미로 성경신학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가장 좁은 의미에서 성경신학은 성경의 **내용**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우선 사항들**과도 일치하는 신학이다. 이 경우 성경신학은 단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에만 충실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성경의 신학을 배열하거나 조직하는가에도 충실하다. 성경신학이 정식 과목이 된 것은 바로 이 좁은 의미에서이다. 그리고 이것이 본 강의에서 우리의 관심사의 초점이 될 것이다.

당신은 전 세계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탐구할 때 성경이 그 신학을 어떻게 조직하고 있는가에 대한 많은 견해들을 표명해 온 것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대의 신학자들이 성경신학에 있어서 다른 접근 방법들을 취하고 있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다양한 견해들의 전부를 탐구할 시간이 없으므로, 우리는 한 가지 매우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형태의 성경신학에 집중하려고 한다.

성경신학 개론이란 강좌의 목적들을 위해, 우리는 이 중요한 형태의 성경신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것이다. “성경신학이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역사적 분석에 기초한 신학적 사색이다.” 이 정의는 적어도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첫째로, 성경신학은 우리가 “역사적 분석”이라고 부르는 성경

해석의 방법에 기초하고 있다. 둘째로, 이 역사 분석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행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셋째로, 성경신학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신학적 사색"을 포함한다.

이러한 성경신학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신학의 정의에 들어 있는 이 세 가지 측면을 살필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역사적 분석"이 의미하는 것을 살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행위"가 의미하는 것을 살필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성경신학에서 행해지는 "신학적 사색"의 종류들을 살필 것이다. 그럼 먼저 성경신학이 성경의 역사적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찰해보자.

A. 역사적 분석 (Historical Analysis)

역사적 분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다른 강좌에서 다루었던 폭넓은 관점을 복습할 필요가 있다. **조직신학 개론**(*Building Systematic Theology*)이란 강좌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세 가지 주된 방법을 통해 성경의 석의를 추구하도록 인도해 오셨음을 보았다. 그 세 가지 방법은 문학적 분석과 역사적 분석과 주제적 분석이다. 여러 번 말했듯이 기독교인들은 항상 이 세 가지 방법을 서로 종합해서 사용한다. 그러나 논의를 위해 편의상 그 방법들을 하나씩 분리해서 다루는 것 또한 도움이 된다.

문학적 분석은 성경을 그림 곧 인간 저자들이 특별한 방식을 통해 독자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한 문학적 묘사로 접근한다. 역사적 분석은 성경을 역사의 창 곧 성경 배후에 있는 역사적 사건들을 들여다 볼 창으로 접근한다. 주제적 분석은 성경을 거울 곧 우리의 관심사와 문제들을 반영하는 거울로 접근한다.

조직신학은 주로 주제적 분석에 기초하고 있는 공식 과목이다. 조직신학자들은 교회 역사를 통해 발전해 온 전통적인 기독교 주제들과 우선 사항들을 강조한다. 그들은 전형적으로 긴 목록의 매우 전통적인 문제들이나 주제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접근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성경신학은 주로 역사적 분석을 통해 성경을 접근한다. 성경신학은 성경을 역사를 들여다보게 하는 창으로 본다. 이 강좌에서 보게 될

것이지만 석의의 초점이 전통적인 신학 주제들에서 성경에 묘사된 역사적 사건들로 옮겨질 때 매우 다른 세트의 우선 사항들과 관심사들이 대두된다. 건전한 성경신학은 건전한 조직신학과 상반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신학은 매우 색다른 신학적 관점들을 제공한다.

성경신학이 성경의 역사적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성경신학이 주로 하나님의 행위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살필 것이다. 성경이 매우 다양한 종류의 역사적 사건들을 전하고 있지만, 성경신학은 주로 “성경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다고 말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 이 질문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이 다양하게 대답하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성경이 역사상의 하나님의 행위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사색해 볼 필요가 있다.

B. 하나님의 행위 (Acts of God)

역사상의 하나님의 행위에 대하여 말하는데 있어서 전통적이고 도움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 장 3 항에 잘 표현되어 있다. 거기에 나오는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묘사는 아주 중요한 관점들의 편리한 요약물 우리에게 제공한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들어보라.

하나님은 통상적으로 그분의 섭리에 방편들을 사용하시지만 그분 마음대로 자유로이 방편이 없이, 방편을 초월해서, 방편에 상반되게 일하기도 하신다.

여기서 이 신앙고백서가 하나님의 섭리(곧 하나님의 역사 개입, 혹은 하나님의 행위라고 부르는 것)의 네 가지 주된 범주를 열거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라. 이 신앙고백서는 이 네 가지 범주를 창조된 도구나 원인인 “방편”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방식의 관점에서 구별하고 있다.

첫째로, 이 신앙고백서는 하나님께서 통상적으로 **방편을 사용하시는** 것 곧 그분이 방편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여러 부분을 통하여 일하심으로써 역사상의 그분의 목적들을 이루신다. 이 범주의 섭리에는 자연적 현상들과 일상적인 창조 행위와 같은 일들이 포함된다.

둘째로, 이 신앙고백서는 하나님께서 방편 **없이** 행하시는 것 곧 정상적인 방편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이 세상에 직접 개입하시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질병을 내리시고 명백한 창조적 도구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고쳐 주신다.

셋째로, 이 신앙고백서는 하나님께서 방편을 초월해서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것 곧 통상적인 것을 취하시되 그것을 보다 더 크게 하시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라에게 있어서 이삭의 초자연적 탄생은 그녀의 아브라함과의 성적 연합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지만, 그것은 사라가 자식 출산이 가능한 정상적인 연령을 훨씬 넘어선 노년에 일어난 일이었다.

넷째로, 이 신앙고백서는 하나님께서 방편에 **상반되게** 행하시는 것 곧 창조의 정상적인 운영과 상반되는 방식으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은 태양이 멈추어 서도록 하실 때 자연계의 통상적인 패턴에 상반되게 행하셨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네 가지 범주들은 하나님의 행위가 의미하는 것을 밝히는데 도움을 준다. 하나님께서 방편을 **통하여** 일하시는 때가 있다.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항상 통제하고 계실지라도 하나님의 개입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곤**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른 행위는 보다 더 극적이다. 하나님께서 창조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초월하거나 역행해서 일하실 때, 우리는 보통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개입" 혹은 "기적"이라고 부른다.

성경신학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행위에 초점을 맞출 때, 그들은 이 전체 범위의 하나님의 행위에 주의를 기울이지만 균등하게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는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방편을 사용하시며 일하셨던 통상적인 사건들을 종종 사색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은 주로 그분이 통상적인 방편 없이, 방편을 초월해서, 방편에 상반되게 일하실 때의 하나님의 특별하신 행위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 하나님의 일이 장엄하면 장엄할수록, 성경신학자들은 그것을 더욱 더 크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천지 창조, 출애굽, 가나안 정복,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 같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극적으로 개입하셨던 때로서 성경의 페이지 중에서 두드러진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신학이 하나님의 행위에 관심을 쏟는다고 말할 때, 이러한 종류의 하나님의 특별하신 행위들이 주된 관심사에 속한다.

지금까지 성경신학이 역사적 분석을 통해 성경을 보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특별하신 행위들에 집중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성경신학의 정의의 세번째 측면 곧 성경신학이 이러한 일들에 대한 신학적 사색을 한다는 사실을 살필 것이다.

C. 신학적 사색 (Theological Reflection)

성경신학에서 신학적 사색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역사적 분석에 기초하고 있지만, 역사적 분석은 여러 가지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적어도 두 가지 주된 경향 곧 사실적 역사분석과 신학적 역사분석을 고려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이 두 주된 경향은 함께 가는 것이지만 그것들의 주된 관심사는 매우 다르다. 그럼 먼저 사실적 역사분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려해보자.

1. 사실적 역사분석 (Factual Historical Analysis)

현대 독자들은 자주 성경의 역사에 대한 "사실적" 접근을 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고대 근동의 더 폭넓은 환경 안에 어떻게 조화되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다. 역사분석의 사실적 접근은 모세의 인도 아래 일어났던 출애굽의 연대, 이스라엘의 왕정을 일어나게 했던 역사적 상황, 어떤 전쟁들이나 다른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증거들과 같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다. 사실적 역사분석의 목표는 꽤 수월한 편이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것과 성경 외적 자료에서 모은 데이터를 결합함으로써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믿을만한 설명을 확보하는 것이다.

2. 신학적 역사분석 (Theological Historical Analysis)

그러한 사실적 관심사들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성경신학은 신학적 역사분석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성경신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행위가 갖는 신학적 의미에 더 많은 흥미를 갖는다. 우리가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토마스 아퀴나스의 작품에 나오는 신학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살피기로 한다. 그 정의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신학적 사색에 대하여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려준다.

그의 유명한 책 **신학대전**(*Summa Theologica*)의 제 1 권 1 장 7 항에서 아퀴나스는 신학을 “신성한 교리”라고 부르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신학이란 하나님 자신을 포함하여 하나님을 가리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 아래 다루는 통일된 학문이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신학이 두 가지 주된 관심사를 갖는다는 점에서 아퀴나스와 의견이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으로, 신학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신학적인 내용은 다른 주제들을 하나님과 관련지어 서술하는 것이다. 전자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전통적 신학이 신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후자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인간론, 죄론, 구원론, 도덕론(윤리학), 교회론 등과 같은 것이다.

이 이중적 정의는 우리에게 성경신학이 신학적 사색을 포함하는 방식들에 대한 통찰력을 준다. 한편으로, 성경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행위가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를 보기 위해 성경이 하나님의 행위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는지 살핀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위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무엇을 계시하는가? 다른 한편으로, 성경신학자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다른 주제들 곧 인간, 죄, 구원, 그리고 그밖의 많은 주제들에도 관심을 갖는다. 성경신학은 이 모든 신학적 주제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확대시키는 길을 열어 준다.

이러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염두에 두며 우리의 두번째 주제 곧 성경신학이 정식 과목이 되게 한 발전 과정을 살펴보자. 성경신학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III. 발전들 (DEVELOPMENTS)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의 두 가지 측면을 살필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성경신학이 일어나도록 무대를 제공한 몇 가지 주된 문화적 변화들을 살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이러한 문화적 변화들에 대한 교회의 신학적 반응들을 살필 것이다. 그럼 먼저 성경신학이 일어나게 한 문화적 변화들을 보기로 하자.

A. 문화적 변화들 (Cultural Changes)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그들 당대의 문화에 잘 전달되는 방식으로 기독교 신학을 재구성함으로써 바르게 대사명을 성취하려고 노력해 왔다는 점이다. 다른 강의들에서 우리는 조직신학이 지중해 연안 지역이 신플라톤 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에 의해 지배되던 때 기독교의 진리를 그 지역에 전달하려는 고대 교회와 중세 교회의 시도에서 나온 것임을 보았다.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철학의 도전을 만났을 때, 그들은 성경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철학적 견해들 때문에 대두된 문제들을 다루려고 노력했다.

매우 흡사하게 성경신학은 대체로 17 세기 계몽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문화적 변화에 대한 반응이다. 그렇다고 성경신학이 전혀 새로운 것이라거나 근대에만 속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인들은 항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행위를 탐구해 왔다. 그러나 근대에 신학자들로 하여금 전에는 전혀 없었던 이러한 역사적 관심사들을 강조하도록 만든 중대한 문화적 변화가 일어났다.

간단히 말하면, 성경신학은 근대 역사주의라고 자주 불리는 근대에 두드러지게 일어난 지적 운동에 대한 기독교의 반응이다. 매우 일반적인 면에서 근대 역사주의는 역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세상을 이해하는 열쇠를 갖고 있다는 믿음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어떤 것에 대한 적절한 이해는 그것이 역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고려함으로써만 얻어질 수 있다.

이런 문화적 변화를 표현했던 가장 유명한 계몽 시대 인물은 독일의 철학자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주후 1770-1831)이었다. 헤겔은 실존의 모든 관점은 변증법으로 알려져 있는 역사적 진보의 논리적 패턴에 사로잡혀 있다는 그의 제안으로 유명하다. 그는 온 우주는 하나님에 의해 질서를 부여받았으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적 논리를 따른다고 생각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러한 합리적인 역사적 패턴에 비추어 보는 때 가장 잘 이해된다.

이와 같은 형태들의 역사주의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근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고고학적 발견물의 쇄도는 이 세상의 고대 문화들에 대한 많은 빛을 던져 주었다. 지질학은 단지 지구의 현재의 모습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연대와 발전을 식별하려는 학문이 되었다. 생물학조차도 그 초점에 있어서 역사적이 되어 버린 것은 생물학자들이 다윈의 진화론이 우리가 사는 지구에 생명이 생겨난 방식을 설명해 준다고 믿으며 진화론의 관점에서 생물학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근대 역사주의를 향한 비슷한 변화들이 신학을 포함한 거의 모든 학문에서 일어났다. 삶의 모든 것은 그것이 역사의 흐름의 관점에서 평가될 때 가장 완벽하게 이해된다고 생각되었다.

근대 역사주의의 강조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런 문화적 변화에 반응했던 방식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역사주의는 기독교인들이 신학을 접근하는 방식들, 특히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B. 신학적 반응들 (Theological Responses)

역사주의가 근대 기독교 신학에 무수한 영향을 미쳐 왔지만, 이 강의에서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성경신학을 일어나게 하였는지에 특별한 관심을 쏟을 것이다. 분명히 성경신학은 역사상 근대 서구 문화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될 것이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를 손상시켜 가며 역사주의를 받아들여 온 반면, 다른 신학자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유지하고 더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역사주의로부터 귀중한 통찰력을 받아들여 왔다.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는 성경신학이란 학문에 일어났던 두 가지 주요 방향을 추적할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근대적 정신을 따르며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만 소위 “비평주의적 성경신학”을 검토할 것이다. 둘째로, 성경의 권위에 여전히 매우 충실한 신학자들에 의해 추구되어 온 “복음주의적 성경신학”을 탐구할 것이다. 그럼 먼저 비평주의적 입장을 따른 성경신학의 발전상을 살펴보자.

1. 비평주의적 성경신학 (Critical Biblical Theology)

근대 역사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많은 비평주의적 신학자들이 새로운 문제들과 우선 사항들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게 되었다. 우리는 두 가지 역사적 발전 단계들을 간단히 다룸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로, 우리는 18 세기에 있었던 초기 단계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보다 최근에 일어났던 후기 발전상들의 일부를 묘사할 것이다. 그럼 먼저 초기 비평주의적 성경신학을 살펴보자.

근대 성경신학의 근원을 1787 년 알트도르프 대학에서 조한 가블러가 행한 취임 연설에서 찾는 것은 꽤 보편화되어 있다. 가블러 이전의 중요한 전임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는 여러 세기 동안 기독교 신학을 인도해 온 하나의 구별에 대하여 말했다.

가블러는 두 개의 기본적인 신학적 추구들을 구별했다. 한편으로, 그는 “성경신학”에 대하여 말하며 성경신학이란 성경의 가르침을 그 자체의 고대 역사적 맥락 안에서 묘사하는 역사적 학문이라고 정의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성경신학의 목표는 고대 성경 저자들과 인물들이 하나님과 그들이 살던 세상에 대하여 무엇을 믿었는가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가블러는 교의신학 곧 조직신학에 대하여 말했다. 조직신학의 목표는 성경을 탐구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과학과 종교에 대한 합리적 사색을 통하여 현 세상에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인식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비평주의적 신학자인 가블러가 성경신학에 의해 발견된 것들이 종종 흥미로울 수 있으나 근대 기독교인들은 근대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의 기준들을 통과한 성경의 부분들만 믿어야 한다고

믿었다는 점이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성경은 합리적인 근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순진한 관행과 신앙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인해, 조직신학은 성경신학이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과 거의 무관하고, 비교적 독립적인 학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블러의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에 대한 구별은 비평주의적 신학자들의 방향을 정해 주었고 그것은 오늘 우리의 시대에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비평주의적 성경신학이 보다 더 최근 세기들에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살피는 것 또한 중요하다. 최근 세기들에 일어난 비평주의적 성경신학의 한 특징을 든다면, 성경의 역사적 주장들은 거의 전적으로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하는 확신이 점점 강화되어 온 점이다. 대체적으로 비평주의적 학자들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종교를 빙자한 틀린 허구이거나 심지어 노골적인 기만이라며 거부해 왔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강한 바람이 늪지대를 통과했던 것이거나 적은 무리의 노예들이 뗏목을 타고 애굽을 탈출했던 것에 불과하다. 가나안 정복은 준 유목민들과 가나안의 도시 국가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지역 전투에 지나지 않는다. 비평주의적 신학이 진전되면서 수많은 지도적인 비평주의적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역사적 인물인 것을 실제로 부인하고 모세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도 의문시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이 존재했었다면 그가 위대한 도덕 선생이었을 수 있지만, 분명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기조차 했다.

이제 당신은 비평주의적 신학자들이 조직신학을 만들 때 성경으로부터 신학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점점 더 어렵게 된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성경이 잘못된 역사적 주장들로 가득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성경신학을 그저 무시해 버렸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이것이 현대의 많은 학자들의 반응이었다. 그러나 비평주의적 신학자들이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였을 때 성경신학이란 분야가 죽은 것은 아니었다. 그 대신에 그들은 당대의 신학을 위해 성경을 사용하는 다른 방법들을 찾았다. 성경을 참된 역사로 다루는 대신 그들은 성경을 역사적 주장들로 **제시되어 있는** 고대 종교적 감성의 표현으로 보기 시작했고, 이러한 고대 종교적 감정들과 경험들이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유익할 수 있을까를 탐구했다.

20 세기의 저명한 성경신학자, 지 어니스트 라이트(G. Ernest Wright)는 이러한 견해를 표현하며 그의 책 **행하시는 하나님**(*God Who Acts*)에서 성경신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그러므로 성경신학은 한 특별한 역사에 있었던 하나님의 행위들에 대한 고백적 이야기로서 이로부터 유래된 것을 강조하는 신학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여기서 라이트가 말한 것에 주목하라. 첫째로, 그의 견해에 의하면, 성경신학은 “하나님의 행위들”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라이트는 아주 특별한 의미로 “하나님의 행위들”에 대하여 말했다.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로서 하나님의 행위들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라이트는 성경신학이 성경과 같은 책들에 발견되는 하나님의 행위들에 대한 “고백적 이야기”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라이트는 성경신학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행위들에 대한 고백적 이야기로부터 “유래된 강조”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믿었다. 라이트의 견해에 의하면,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대부분 허구적이다. 그러나 바르게 보면, 그 이야기들은 신학적 진리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성경신학자들의 과업은 성경의 허구적 이야기들의 배후에 있는 신학적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비평주의적 성경신학의 이러한 접근은 현대 신학에서 보편화된 하나의 구별과 잘 맞아 떨어진다. 많은 독일 신학자들은 두 개의 다른 용어를 사용하며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과 성경에 나오는 고백적 역사를 구별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은 히스토리아(historia)란 용어로 나타냈다. 이것들은 현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입증될 수 있는 성경의 사건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성경에 나오는 “종교적 역사 이야기”의 많은 것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가 아니고 하일스게시히테(Heilsgeschichte) 곧 “구속사” 즉 “구원사”이다. 구원사는 역사 이야기의 형식으로 종교적 감성을 표현한 것이다. 구속사는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에 대한 고백적 이야기이다.

오늘날에도, 성경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는 비평주의적 신학자들의 대부분은 성경의 역사를 **하일스게시히테**, “구속사,” “고백적, 역사처럼 보이는” 신학적 사색으로 간주한다. 성경의 역사적 신빙성을 부인하지만 그들은 성경이 어떻게 인간의 종교적 감성을 반영하는가를 탐구함으로써 그들의 신학을 위해 성경을 폐기하지는 않는다. **하일스게시히테**, 곧 이스라엘과 초대 교회의 전승들은 가장 최근의 비평주의적 성경신학의 초점이고 그것의 결론들은 현대 조직신학이나 현대 신학에 상당히 널리 퍼져있다.

지금까지 비평주의적 신학자들 사이에 성경신학이 학문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두번째 성경신학의 흐름인 복음주의적 성경신학을 살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복음주의적”이란 용어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계속 승인하는 신학 입장을 의미한다.

2. 복음주의적 발전들 (Evangelical Developments)

다행스럽게도, 전 세계의 여러 교회 안에는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 입장을 따르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 왔다. 이 복음주의적 기독교인들은 과학적 연구의 가치와 중요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성경이 역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성경이 주장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성경은 참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런 확고한 인정에도 불구하고, 근대 역사주의는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들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쳐 왔다.

복음주의적 성경신학을 탐구하기 위해 우리는 비평주의적 성경신학을 논의했던 것과 비슷하게 두 가지 방면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첫째는 근대 복음주의적 성경신학의 초기 단계이고, 둘째는 그것의 보다 최근의 발전상이다. 복음주의적 성경신학의 초기 단계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는 19 세기 프린스톤 신학교의 두 명의 미국 신학자들의 매우 영향력 있던 견해를 살필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찰스 하지의 견해를 살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벤자민 비 워필드의 견해를 살필 것이다. 그럼 먼저 찰스 하지가 성경신학을 어떻게 이해했었는지 살펴보자.

찰스 하지(1797-1878)는 그의 생애를 주로 조직신학에 바쳤다. 세 권으로 된 그의 책 **조직신학**(*Systematic Theology*)의 서론에서 하지가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을 어떻게 구별했는지 들어보라.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의 차이는 이렇다. 성경신학의 임무는 성경의 사실들을 확인하고 진술하는 것이다. 조직신학의 임무는 그 사실들을 취하여 그것들의 상호 관계와 그것들의 다른 동류의 진리들과의 관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 사실들을 변호하고 그것들의 조화와 일치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지는 성경신학을 성경의 사실들의 연구 곧 석의적 학문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하지는 조직신학을 성경신학에서 식별된 사실들을 취하여 그것들의 다양한 논리적 연관성에 유의하며 상호관계를 따라 그것들을 정리하는 학문으로 정의했다.

비평주의적 신학자들과 달리, 하지는 성경의 권위를 믿었다. 그의 성경 권위에 대한 헌신으로 인해 하지는 기독교인들이 조직신학을 성경신학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연구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선별적으로 성경의 어떤 부분은 부인하고 어떤 부분을 승인하는 대신, 하지는 조직신학은 성경신학이 성경에서 찾은 모든 결과들에 복종하고 그것들을 논리적인 순서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의 관점들의 많은 것이 그가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을지라도, 그의 후계자인 벤자민 비 워필드(1851-1921)의 영향 아래 복음주의적 성경신학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워필드는 그의 성경 연구에 대한 전문성으로 인해 성경신학의 복음주의적 개념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의 영향력 있는 논문인 **조직신학의 개념**(*The Idea of Systematic Theology*)에서 워필드가 성경에 있는 신학의 연결 혹은 조직화에 대하여 어떻게 말했는지 들어보라. 이 논문의 제 5 부에서 워필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직신학은 성경 석의의 과정을 통해 제공된, 흩어져 있는 신학적 자료들의 연결이나 논리적인 구성이 아니다. 조직신학은 성경신학에

의해 주어진, 이미 연결되거나 논리적으로 배열된 자료들을 결합하는 것이다. . . 우리가 가장 참된 조직신학을 얻는 것은 성경에 흠어져 있는 교리적 진술들을 연달아 한꺼번에 모으는 방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성경의 다양한 신학들에 위치해 있는 그대로 적절한 순서와 비율에 따라 그것들을 결합하는 방식에 의해서이다.

이 진술을 통해 워필드는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요점을 지적했다. 첫째로, 조직신학은 성경에서 서로 독립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지 않은 신학적 진술들의 연결이거나 구성이어서는 안 된다. 워필드 이전에는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을 조직신학적 명제들의 원천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었고 조직신학의 전통적인 패턴을 따라 이러한 명제들을 배열했다. 성경의 가르침들은 그것들을 정리되지 않은 자료들(raw data)을 취급하는 것처럼 요약되었다. 그러나 워필드는 성경의 가르침들이 성경 자체에서 이미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성경은 비조직화된 명제들의 수집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논리적 구성과 그 **나름대로의** 신학적 관점들을 가지고 있다.

둘째로, 워필드의 견해에 의하면, 성경에서 신학이 조직화되는데 있어서 **한 가지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성경이 그 자체로 결코 모순되지 않고 그 모든 가르침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틀림없지만, 워필드가 표현한대로 성경신학은 “성경의 다양한 신학들”을 다룬다. 성경 책들의 인간 저자들은 그들의 신학적 견해들을 서로 보충적이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다. 그들의 작품들은 다양한 어휘, 구조, 우선 사항들을 반영했다. 사도 바울이 신학을 표현한 방식은 이사야와 같지 않았고, 마태는 모세와는 다른 용어, 강조, 관점을 가지고 표현했다.

셋째로, 성경신학이 성경에서 다양한 신학들을 식별하기 때문에 “가장 참된 조직신학”의 임무는 성경의 다양한 신학 체계를 하나의 완전한 통일체로 결합하는 것이다. 조직신학은 성경의 신학들을 “그것들의 적절한 순서와 비율에 따라” 통합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워필드는 성경신학이 성경에 제시된 다양한 신학체계를 식별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조직신학은 성경의 다양한 모든 신학들을 결합하여 전체를 망라하는 하나의 온전한 통일체로 만드는 것이다. 워필드의

시대로부터 우리의 시대까지 복음주의적 성경신학자들은 근본적으로 이 기본적인 패턴을 따라왔다. 그들은 성경의 여러 부분의 독특한 신학적 관점들을 찾으려고 노력해 왔고 조직신학을 성경의 모든 신학을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만드는 노력으로 생각해 왔다.

하지와 워필드의 견해를 배경으로 두고 이제 우리는 복음주의적 성경신학에서 보다 최근에 일어난 발전상을 계속해서 살필 것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현대 복음주의적 성경신학에 다른 어느 신학자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친 성경신학자는 게할더스 보스(1862-1949)이었다. 1894 년에 게할더스 보스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초대 성경신학 교수직을 부여받았다. 그는 하지와 워필드의 연구에 기초하였지만 성경신학을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였다.

대체적으로, 보스는 성경신학이 성경의 가르침을 발견하고 조직신학에 권위적인 가이드를 준다는 하지와 워필드의 견해에 동의했다. 더 나아가, 보스는 건전한 성경신학이 성경의 다양한 신학들을 식별하고 그것들이 조직신학에서 하나의 완전한 통일체로 결합되어야 한다는 워필드의 견해에 동의했다.

그러나 보스는 그의 전임자들과 달리 성경의 다양한 모든 신학들을 관통하는 공통의 맥락(줄거리)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성경의 다양한 신학들이 공통적으로 구속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상의 전능한 행위들이 성경의 모든 부분의 가르침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믿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보스는 성경신학이 성경 책들의 각 저자가 하나님의 전능한 행위에 관심을 보였던 방식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보스는 1894 년 그의 취임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직신학은 원을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성경신학은 선을 재생산하려고 추구한다. . . . 이것이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의 참된 관계이다. 조직신학은 성경신학이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과업으로부터 자라나는 면류관이다.

보스에 의하면, 성경신학은 성경저자들이 역사에 대하여 반성하던 방식들에 초점을 맞춘다. 성경신학은 하나님의 역사상의 위대한 행위들에 대한 성경의 다양한 관점들과 신학적 의미를 식별한다. 그 다음으로 조직신학은 성경이 구속사에 대하여 가르치는 모든 것을 하나의 통일된 신학 체계로 만든다. 복음주의의 거의 모든 분파에서 성경신학은 이와 같은 기본적인 핵심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현대 복음주의적 성경신학이 어떻게 성경의 주요 특징인 구속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이 강의의 세번째 주제 곧 복음주의적 성경신학자들이 역사와 계시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필 것이다.

IV. 역사와 계시 (HISTORY AND REVELATION)

성경신학에 있어서 역사와 계시보다 더 핵심적인 두 개념은 없다. 이미 살펴본 대로 성경신학은 모든 성경을 통일하는 맥락으로서의 역사에 집중한다. 이렇게 역사를 강조하는 한 가지 이유는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가 역사적인 사건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이해 때문이다.

성경신학에서의 역사와 계시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성경신학자들이 계시를 “행위와 말씀”으로 정의하는지 살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성경에 드러난 역사와 계시의 개관을 탐구할 것이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계시가 행위이고 말씀이라는 개념을 고찰해보자.

A. 행위와 말씀 (Act and Word)

이 중요한 개념들을 탐구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문제를 다룰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성경이 행위 계시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지 살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말씀 계시” 혹은 언어 계시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살필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행위 계시와 말씀 계시의 상관성을 살필 것이다. 그럼 먼저 “행위 계시”라는 개념을 살펴보자.

1. 행위 계시 (Act Revelation)

우리는 모두 보편적인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일들을 적어도 두 가지 방식으로 드러낸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편으로,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 그들은 그들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통해 그들에 대하여 많이 알 수 있다. 그들이 행하는 방식은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를 드러낸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자주 그분의 행위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금방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시 98:2-3 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찬양을 들어보라.

(시 98:2-3 개역개정)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뭇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시편 기자가 2 절에서 “드러내다, 밝히다, 계시하다”는 의미를 갖는 히브리어 [갈라]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를 “명백히 나타내셨다”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를 뭇 나라의 목전에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구절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셨다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뭇 나라들에게 “나는 공의롭다.”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인가? 이 경우는 그렇지 않다. 3 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 때 드러났다. 3 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을 기억하시며 **행하신** 결과로 땅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나타난 것을 염두에 두었다. 시편 기자가 말하던 계시는 하나님의 행위였다.

이러한 더 기적적인 종류의 “행위 계시”는 성경 전반에 걸쳐 나온다. 예를 들면, 창조의 행위는 하나님의 권능과 성품을 드러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하신 것은 그분의 원수들에 대한 권능과 그분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다. 이와 비슷하게, 다윗 왕조의 수립, 이스라엘과 유다의 국외 추방,

국외 추방으로부터 고국으로의 귀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행위 계시”라는 개념은 성경신학에 필수적이다.

얼핏 보기에 “행위 계시”에 대한 이러한 변화가 기독교 신학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서 이러한 강조가 무슨 차이를 일으키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현대의 역사적 강조의 중요성을 살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교리인 신론을 고려 대상으로 두며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이 이 주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살피는 것이다.

전통적인 조직신학의 관점을 보여주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보도록 가르치고 있는지 잠시 숙고해 보라. **소교리문답** 4 번의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이고 그 대답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분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양선, 진실성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이 대답은 성경에 충실하지만,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영원하시고 항구적인 속성의 관점에서 다소 추상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와 대조적으로, 성경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역사상의 구체적인 행위들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쏟는다. 이러한 “행위 계시”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은 신론에서 다른 강조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가져온다.

전형적인 복음주의적 성경신학자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그들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과 같이 대답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소교리문답의 대답과 일치된 견해를 보일 것이지만, 그들의 강조는 훨씬 더 역사적이다. 성경신학자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이다.”라고 말하거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국외추방을 통하여 심판하신 분이다.”라고 말하거나,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다.”라고 말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어떤 경우든지, 성경신학자들은 하나님을 그분의

영원하신 속성의 관점에서 주로 생각하기 보다는 그분이 역사상 **행하셨던** 일의 관점에서 주로 생각한다. 그리고 신론에 들어맞는 것은 성경신학의 모든 관점으로 확대된다.

복음주의적 성경신학자들은 “행위 계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말씀 계시” 곧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계시에 대한 결정적인 필요성을 단언해 왔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행위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행위를 설명하신다.

2. 말씀 계시 (Word Revelation)

언어 계시 곧 말씀 계시는 여러 가지로 이유로 필수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말씀 계시”를 그렇게 중요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두 가지 사항만 언급할 것이다. 그 중 하나는 사건들의 의미가 모호한 점이고, 다른 하나는 사건들의 의미가 방사적으로 퍼지는 점이다. 그럼 먼저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의 모호함이 어떻게 “말씀 계시”를 필요하게 만드는지 고찰해 보라.

하나님의 행위가 모호하다고 할 때,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그분의 행위의 의미가 인간들에게 항상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철저하게 그분이 행하시고 계시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행위가 말씀을 통하여 해석되고 분명히 설명될 필요가 있다.

일상 생활 가운데서 한 예를 생각해 보자. 당신이 여러 학생들과 함께 교실에 앉아 있을 때 그 학생들 중 한 사람이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일어선다고 상상해 보라. 물론 당신은 이런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모를 것이다. 그것은 너무 모호하다. 아마도 당신은 의아해 하며 “그가 왜 일어나 서 있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라고 자문할 것이다. 실제로 교수님은 아마도 강의를 중단하고 그 학생에게 왜 일어섰는지 설명해 보라고 할 것이다. 사실 모든 사람은 그의 행동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 줄 언어적 의사소통을 바라고 있을 것이다.

이와 매우 흡사하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행위들은 유한하고 죄많은 사람들에게 자주 모호하다. 그것들 또한 말씀을 통한 설명 곧 말씀에 의한 해석을 필요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본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기 시작하던 때를 생각해 보라. 스 3:10-12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스 3:10-12 개역개정) 건축자가 여호와와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한 역사적 사건 곧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로부터 본국으로 돌아온 후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위를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에게 모호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을 보고 그것이 큰 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기뻐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새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서 그보다 못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슬퍼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계시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어느 쪽으로든 보여질 수 있었다. 이것이 에스라서가 포로기 이후에 성전 건축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한 이유이다.

이와 비슷하게 막 3:22-23 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의하여 오해되었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분의 행위들에 대한 참된 해석을 주셨는가를 읽는다.

(막 3:22-23 개역개정)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 위대한 행위들을 목격한 어떤 사람들은 귀신들이 사탄의 힘에 의해 쫓겨났다고 잘못 결론내렸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행위들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설명하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행위들의 모호성은 “말씀 계시”가 정기적으로 “행위 계시”에 수반되었던 이유를 설명해 준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는 사건들의 참된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그것들을 설명해 준다.

“행위 계시”가 “말씀 계시”와 함께 짝을 이루는 것은 사건들의 의미가 어느 정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사건들의 의미가 **방사적으로 퍼지기(radial)** 때문이다. 많은 점에 있어서 성경의 한 사건은 연못으로 떨어진 돌과 같다. 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 것이다. 물은 모든 방향으로 잔물결을 일으키며 연못 수면 위에 떠있는 모든 것에 닿는다. 돌을 떨어뜨리는 것의 효과는 방사적으로 퍼지는 것이고 그것은 연못 전체로 방사적으로 퍼져 나간다. 이와 아주 비슷하게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의 의미도 방사적으로 퍼진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이 사건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하신 것으로 설명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홍해의 물이 갈라진 것이 수많은 다른 의미들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예를 들면, 그것은 아마도 주변 지역의 해양 생활에 영향을 미쳐 그 지역의 수산업을 망가뜨렸을 것이다. 이런 결과는 오늘의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중요했다. 더 나아가 애굽 군대가 수장된 것은 애굽인들에게 온갖 종류의 의미가 있었다. 아내들은 그들의 남편들을 잃었고 자녀들은 그들의 아버지들을 잃었다. 이 사건의 수많은 영향을 가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사건들이 방사적으로 퍼지는 의미를 갖고 있음을 인식할 때, 남는 질문은 이 모든 의미들 중의 어느 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이해하려고 할 때 어느 의미가 가장 중요한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이해하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말씀 계시”를 통하여 알려

주셨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행위에 대한 해석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위들로부터 적절한 신학적 함의들을 추론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행위 계시와 말씀 계시가 성경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 형태의 계시가 서로 연관되는 방식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성경신학에서 행위 계시와 말씀 계시가 어떤 방식들을 통해 서로 연관되는지 살펴보자.

3. 상관 관계들 (Interconnections)

우리의 목적상 이러한 연관들에 대하여 우리는 세 가지 유형의 말씀 계시의 관점에서 논의할 것이다. 첫째는 예고적 “말씀 계시” 곧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사건 설명을 위해 **미리** 주어지는 말씀 계시이다. 둘째는 동시적 “말씀 계시” 곧 사건들이 일어날 때 사건 설명을 **동시에** 주어지는 말씀 계시이다. 셋째는 회고적 “말씀 계시” 곧 사건들이 일어난 후 사건 설명을 위해 **나중에** 주어지는 말씀 계시이다.

첫째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행위보다 미리 주어진 경우에 대한 많은 예들이 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설명하고 해석한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예고적 “말씀 계시”는 곧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말하며 그것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목격할 사람들에게 자주 주어졌다. 예를 들면, 출 3:7-8 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기 전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에게 말씀하셨다.

(출 3:7-8 개역개정)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곧 하시려고 하는 일을 미리 알려 주신 것이다. 그것은 예고적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미래 행위의 의미를 미리 말해 주는 것이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모세는 애굽에서의 그의 사역을 특별하게 보며 자신을 준비해야만 했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했다. 그가 앞으로 애굽에서 할 일은 단순한 인간적 사건이 아니었다. 모세는 그의 사역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고 거기서 복을 누리도록 하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위보다 실제로 더 못한 어떤 것으로 축소해서는 안 되었다.

또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예고적 "말씀 계시"는 먼 미래의 사건 곧 너무 멀어 그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 사건에 대하여 말한다. 이 경우에 "말씀 계시"는 "행위 계시"보다 훨씬 이전에 주어진다. 예를 들면, 사 9:6-7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위대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 9:6-7)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기묘하신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불릴 것이다. 그분의 통치와 평화의 증대는 끝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며 그의 통치를 한없이 확장할 왕자에 대하여 말했다. 그는 메시아 곧 예수님에 대하여 말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적어도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700 여년** 전에 주어졌다. 이 말씀이 이사야 당시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이 분명하지만, 이 "말씀 계시"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그것이 가리키던 하나님의 행위를 결코 보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고적 "말씀 계시"가 다양한 방식으로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들의 의미에 대한 통찰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 주어졌다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종류의 계시는 성경 전반에 걸쳐 나온다.

둘째로,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께서 사건과 더불어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을 인식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가 정확하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드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적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사건과

매우 근접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분은 흔히 행하시면서 그분의 "말씀 계시"를 주셨다. 예를 들어, 출 19:18-21 에 나오는 하나님의 행위와 말씀에 대하여 들어보라.

(출 19:18-21 개역개정)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 .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 단락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위는 시내산 꼭대기의 불과 연기와 진동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의 과시이다. 하나님은 이런 장엄한 행위를 수행하시면서 그의 백성이 시내산에 접근하지 않도록 경고하심으로써 그분이 하시고 계셨던 일의 의미를 설명하는 "말씀 계시"를 선포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위가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의해 이해될 수 있도록 행동하시는 **동시에** 그분의 "말씀 계시"를 주셨던 것을 볼 수 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때때로 회고적이라는 사실 곧 사건들이 일어난 **후에** 그것들의 의미를 설명하는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 경우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고 나서 그분의 행위들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것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사실상, 전체로 보아서,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가장 흔한 방식이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건이 일어난 바로 직후에 말씀하셨다. 이 경우에 하나님은 그분의 행위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내신 후에 바로 그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신 출 20:2-3 을 들어보라.

(출 20:2-3) 나는 여호와, 너를 애굽 곧 종살이하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경험이 결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고 설명하셨다. 더 나아가 이 “말씀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함의하는 것들 중의 하나를 설명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아니 되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요구는 그들의 위대한 구원 사건을 실제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의 의미를 설명하는 회고적인 말씀이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행위 계시”가 일어난 오랜 후에, 멀리 되돌아보며 회고하는 말씀 계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했다. 그것은 사건들이 일어나던 때에는 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예를 들면, 창 1:27 에서 우리는 인간 창조에 대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창 1:27)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은 그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로 그분은
그들을 창조하셨다.**

이 회고적 말씀의 최초의 수신자들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후 수천년 뒤에 살았던, 출애굽 후에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창조에서 있어서 사람의 원래 역할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위해 이 “말씀 계시”를 주셨다.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자주 그분의 행위들을 뒤따르며 사건들이 일어난 후에 그의 백성들에게 이해를 제공한다. 이러한 종류의 말씀 계시는 성경 전반에 걸쳐 나온다.

성경신학이 성경에서 역사와 계시가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 강조하는 것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두번째 주제 곧 성경에 나오는 역사와 계시의 개관을 다룰 필요가 있다. 성경은 수천년에 걸쳐 일어났던 수십만의 사건들을 언급한다. 성경신학의 과업의 하나는 이렇게 수많은 사건들의 패턴들과 개관을 살피는 일이다.

B. 개관 (Contours)

성경신학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와 계시의 개관을 이해해 온 방식들을 탐구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문제를 다룰 것이다. 첫째는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목표이다. 둘째는 성경에 나오는 계시의 상승과 하락이다. 셋째는 성경에 나오는 계시의 유기적 발전이다. 그럼 먼저 성경에 있는 역사의 목표를 숙고해보자.

1. 목표 (Goal)

우리가 성경의 부분들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직접적인 많은 목표들을 향하여 역사를 진행하셨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새로운 시작을 가져오기 위해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목표는 자신에게로 한 특별한 백성을 부르시는 것이었다. 애굽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신 목표는 구약 시대에 그분의 특별한 백성을 약속의 땅에 사는 나라로 세우시는 것이었다.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조로 선택하신 목적은 그의 백성을 제국적 영광으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영원한 구원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성경 역사의 각 단계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행위 계시와 말씀 계시를 인도할 특수한 목적들 혹은 목표들을 가지셨다. 성경신학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목표들을 묘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사도 바울은 롬 11:36 에서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를 지적했다.

(롬 11:36) 이는 모든 것이 그분(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바울이 표현한 대로, 모든 것은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모든 것은 “**그분에게**” 돌아간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위해 존재한다. 요컨대, 하나님은 그분의 지으신 만물의 역사를 조정하셔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분에게 한없는 영광을 가져오도록 하실 것이다.

이 전반적인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 성경신학자들에 의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묘사되어 왔다. 예를 들면, 어떤 학자들은 아주 일반적으로 종말론 혹은 말세를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또 어떤 학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이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다양한 견해들은 나름대로 줄 수 있는 가치들이 있지만, 이 강의들에서 우리는 모든 역사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간단히 표현하면, 우리는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땅 끝까지 확장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앞에서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실 과정이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이 목적을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며 마 6:10 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마 6:10) 당신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당신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완전한 천상적 통치가 이 세상의 모든 지역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질 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며 그분을 만물을 창조하신 최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으로 높일 것이다. 그 때에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이 웅대한 목적을 위해 일어날지라도, 성경의 책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의 핵심에 있는 사건들에 특별히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성경의 책들은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으로 확장시키는 목적을 이루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지 추적한다. 우리 모두는 성경의 역사의 기본적인 개관을 알고 있다. 성경을 시작하는 장들(창 1-2)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분의 형상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인간으로 에덴 동산을 땅 끝까지 확장하도록 하심으로써 혼돈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를 시작하신 것을 묘사한다. 그러나 성경의 그 다음 장들(창 3-11 장)은 또한 어떻게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역하며 이 세상에 타락과 죽음을 가져왔는지 묘사한다.

구약의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하시어 그들로 나머지 인간들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땅 끝까지 확장하도록 하셨는지 전하고 있다. 구약이 우리에게 말해 주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많은 것을 성취하셨지만 이스라엘 또한 비참하게 실패했다.

이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웅대한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신약이 계시하듯이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하신 아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셨다.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과거의 실패들을 고치시고 땅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그분 자신을 위한 한 백성을 구속하셨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부활과 승천,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한 성령의 사역, 그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통하여, 원래 인간들에게 주어졌던 과업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계 11:15 에서 우리가 읽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땅에 임하게 하시는 분으로 환호받는다.

(계 11:15)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으니 그분이 영원무궁토록 다스릴 것이다.

성경신학에 대한 이러한 접근에 있어서, 성경의 역사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이 웅대한 계획의 일부이다. 성경 전반에 걸쳐 발견되는 다양한 종류의 하나님의 행위들은 크든 작든, 평범하든 비범하든,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으로써 하나님께 궁극적인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

성경의 역사의 목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에 미치는 그분의 나라를 세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우리는 성경의 역사의 개관의 두번째 측면 곧 하나님의 행위 계시와 말씀 계시의 상승과 하락을 다룰 필요가 있다.

2. 상승과 하락 (Rising and Falling)

여러분은 해변에 가서 파도가 해안으로 밀려오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바다의 조수가 앞으로 밀려 올 때 하나의 잔잔한 움직임일 통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님을 눈치채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진행은 이루어지지만 조수의 밀려옴은 파도가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일어난다.

이와 비슷하게 복음주의적 성경신학은 하나님께서 행위 계시와 말씀 계시의 파도 가운데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목표를 향해 역사를 진행해 오시는 것을 강조해 왔다.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그분의 세상을 항상 통제하실지라도 그분이 역사상으로 다른 시기들보다 보다 더 극적으로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시기들이 있다. 그 결과로 인해, 성경의 역사가 그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진전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계시는 상승하고 하락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하나님의 행위 계시와 말씀 계시를 고려할 때, 두 가지 방식 곧 하나님의 계시의 **최하점**들로 간주될 수 있는 시기들과 하나님의 계시의 **최고점**들로 간주될 수 있는 시기들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한편으로, 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행위 계시와 말씀 계시가 별로 없는, 소위 역사의 최하점들로 간주되는 시기들이 있다. 예를 들어, 사무엘서 저자가 삼상 3:1 에서 사무엘의 생애의 초기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들어보라.

(삼상 3:1) 어린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다. 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고 이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는 계시가 희귀했다. 그분의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잠시 그들로부터 물러나셔서 그들을 위해 일도 별로 아니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도 거의 하지 않으셨다.

성경 역사에서 계시의 최하점의 가장 극적인 예는 신약과 구약 사이의 시기로 말라기와 세레 요한 사이의 시기이며 이스라엘의 땅이 외세의 지배아래 있었던 시기이다. 이 중간기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각한 저주 아래 있었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하여 극적인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말씀도 거의 하지 않으셨다.

다른 한편으로, 일어나는 조수의 출렁이는 파도처럼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의 행위 계시와 말씀 계시가 극적으로 쇄도하는 최고점들이 있었다. 이런 때에는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한 일들을 행하시고 그의 백성에게 매우 많은 것을 계시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실제로 그분의 나라를 새로운 발전의 단계로 접어들게

하셨다. 예를 들면,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는 계시가 드물었지만, 사무엘이 성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셨고 다시 한 번 그분의 뜻을 그의 백성에게 알리시기 시작하셨다. 사무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행위 계시와 말씀 계시를 늘리시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왕정 시기 곧 다윗 왕조의 시기로 나아가게 하셨다.

이와 매우 흡사하게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기의 최하점에 이어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다. 이 계시는 바로 세례 요한,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우리에게 준 위대한 말씀 계시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위들은 성경 역사를 우리가 신약시대라고 부르는 단계로 접어들게 했다.

하나님의 행위 계시와 말씀 계시의 고조는 성경신학에서 특별히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이 시기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새로운 단계 곧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하시는 때이기 때문이다. 노아 시대의 홍수, 아브라함의 소명, 이스라엘의 출애굽, 왕정의 수립, 이스라엘과 유다의 국외추방, 국외추방후 본토 귀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성령의 강림 등과 같은 사건들은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발전 단계로 접어든 시기들을 표시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복음주의적 성경신학에서 성경의 역사를 여러 시기 혹은 여러 시대로 나누는 것이 보편적이다.

하나님의 계시의 상승과 하락이 성경의 역사를 시기들 혹은 시대들로 나누게 한 것을 인식하는 것은 이 여러 단계의 역사가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매우 심각한 질문 하나를 일어나게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성경신학은 성경의 역사의 **유기적** 성격을 강조해 왔다.

3. 유기적 발전 (Organic Development)

현대 복음주의적 기독교에 익숙한 사람은 누구든지 성경 역사의 시대들이 근본적으로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다고 믿는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많음을 알고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성경의 시대들은 서로 거의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특별히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서로 더욱 더 그렇다. 이러한 접근이 오늘날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신학은 성경 역사의 발전들이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유기적”이란 용어는 성경의 역사가 성장하는 유기체 같아서 그 성장이 완전히 분리되거나 별개의 조각들로 나누어질 수 없음을 나타내기 위한 메타포로 사용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성경의 믿음은 자주 씨와 비교되는데 이 씨는 성경의 역사의 시작 단계에서 심겨지고 구약을 통하여 줄곧 자라서 마침내 신약에 이르러 성숙에 이른다. 서로 다른 시기 사이에 일어나는 변화들은 성장 혹은 성숙으로 간주된다. 어떤 시기에 식물들이나 동물들이 다른 시기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게, 더 빠른 성장은 쇄도하는 행위 계시와 말씀 계시가 역사를 새 시대로 접어들게 할 때 일어난다. 그러나 성경 역사의 시기들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개의 독립된 부분들이 아니다. 오히려 계시의 연속적인 단계들은 계시의 이전 단계들의 개화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성경신학자들은 성경의 초기 단계들에서 신약 계시의 씨들을 보려고 매우 열심히 노력하며, 계속되는 행위 계시와 말씀 계시가 하나님 나라의 연속되는 단계들의 성장을 가져오며 결국 신약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 씨들이 성장했는가를 추적한다.

우리가 의미하는 것을 예시하기 위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약의 여러 가지 핵심적 가르침들의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세 가지 세트의 사건들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계시”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신약으로부터 삼위일체의 제 2 위이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홀로 유일하게 온전히 의로운 인간으로 사셨다는 것을 배운다. 신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예수님이 그분의 백성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주심으로써 그들의 구원을 확보했다고 가르친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이 그분의 적들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새로운 세상에서 그분의 백성에게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심으로써 온 세상을 온전하게 다스리실 것임을 배운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위와 말씀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특징이다.

예수님에 관한 이러한 일들을 알고 믿는 것이 굉장히 좋을지라도, 이러한 신약의 주제들이 실제로 성경 전반에 걸쳐서 유기적으로 개진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훨씬 더 깊어질 것이다. 어떻게 이것이 사실인지 보기 위해, 우리는 잠시 구약의 계시가 개화되고 성숙해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것에 이르게 된 몇 가지 방식들을 조명해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것은 실제로 창세기를 시작하는 장들에서 조그마한 씨로서 시작되었다. 첫째로, 창세기 1 장에 묘사되어 있듯이 태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그분의 세상에서 수행해야 할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셨다. 그분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낙원 혹은 나라가 온 세상으로 퍼지도록 하는 의로운 도구로서 부름을 받았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의로운 삶을 강조하는 한 가지 이유이다.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 곧 원래 인간에게 주어졌던 역할을 완전하게 감당하신 분이시다.

둘째로, 창세기 2 장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과 나머지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 받을 필요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관한 신약의 가르침의 씨였다. 그리스도는 죄의 저주로부터 그분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승천하셨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속죄와 능력있는 부활과 효과있는 승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나머지 창조 세계의 구원을 본다.

셋째로, 죄를 짓고 타락한 바로 직후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인간들 중 한 의로운 남은 자가 악에 대하여 승리를 거둘 것임을 알리셨다. 창 3:15 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

(창 3:15) 원수됨(적개심)을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둘 것이고, 네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둘 것이다. 그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뱀(곧 사탄)의 후손과 여자(곧 하와)의 후손, 다시 말하면 뱀의 속임수를 계속 따르는 자들과 원래 인간에게 주어졌던 길을 취하는 자들로 나누어질 것을 선언하셨다. 이 구절이 암시하는 것처럼 인간들에 대한 이러한 두 부류의 구분은 이상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결국 뱀의 머리를 부수고 뱀과 뱀의 후손에 대한 승리를 할 것임을 약속하셨다. 이런 이유로 인해, 롬 16:20 에서 사도 바울은 영광 중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롬 16:20)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당신들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승리적 재림은 이렇게 창세기의 매우 이른 장들에 예견되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결코 전혀 새로운 사상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것들은 성경 역사의 아주 이른 시기에 벌써 씨앗으로 심겨져 있었다.

신약의 가르침이 창세기의 처음 장들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들을 보는 것과 더불어, 창세기의 처음 장들과 신약 **사이에** 여러 단계의 발전이 있다는 것 또한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강의에서 우리의 목적상 구약 역사의 한 단계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를 다루셨던 시기만을 간단히 다룰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의로운 삶이 창세기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원래의 역할을 성취한 것을 보았다. 그러나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약이 끝날 때까지 이 주제는 특별한 방향으로 발전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여자(하와)의 신실한 후손으로 부르시어 하나님 나라를 땅 끝까지 확장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정의 수립과 더불어 하나님은 한 의로운 다윗의 후손이 그들의 왕국의 운명 가운데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도록 정하셨다.

이것이 바로 신약이 단순하게 예수님을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는 이유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던 동안 인간의 역할이 발전했던 방식들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은 의로운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나셨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다윗 왕좌의 적법한 후사로서 이스라엘의 의로운 왕이셨다. 신약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삶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원래의 임무를 성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왕과 관련되어 계속 발전된 그 임무도 성취하셨다고 묘사한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써 생긴 구속에 대한 필요를 채우셨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속의 주제가 구약에서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고려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다 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의 현실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 처음에는 성막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드리는 동물 제사들과 예배를 규정하셨다. 이러한 예식들은 상세한 제사장적 규례들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이러한 규정들이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죄의 영향으로부터 일시적 완화를 줄 수 있을 뿐이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로부터 어느 누구도 영구히 구원하지는 못했다.

구약 역사 안에서의 이러한 발전은 왜 신약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일들을 강조하는지 설명해 준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구약의 모든 동물 제사들의 성취로서 그분의 백성을 위한 온전한 제사가 드러졌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완전한 최종적인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오늘도 승천하신 주님으로서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역할을 수행하시며 그분의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신다. 이 역할을 통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며 계속해서 자신의 제사의 공로에 호소하신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줄곧 창세기의 처음 장들에 나오는 범죄로 인한 타락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한 이스라엘의 성막과 성전 예배라는 중간 단계들로부터 발전되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있을 영광스러운 최종 승리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던 것으로부터 발전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특별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 그들은 여자(하와)의 후손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부르받았던 것이다. 사탄의 길을 따르던 이방

나라들이 구약 시대 내내 모든 측면에서 이스라엘을 적대하고 괴롭혔지만,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때 그들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런 이유로 인해, 신약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최종적 승리를 새 예루살렘의 도래로 묘사하는 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굴복할 때, 그분은 그분의 교회를 한 몸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영광스러운 승리의 약속되고, 최종적이고, 영원한 상태로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살핀 예를 통해 우리는 성경신학이 어떻게 성경의 역사를 발전하면서도 통일된 유기적인 역사로 보는지 알 수 있다. 역사의 각 단계는 이전 단계들의 계시에 기초하여 세워지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성취를 바라본다. 계속되는 이 강좌를 통해 우리는 성경신학에서 하나님의 행위 계시와 말씀 계시에 대한 이런 유기적 견해가 거듭거듭 강조되는 것을 볼 것이다.

V. 결론 (CONCLUSION)

이 강의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성경신학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성경신학이 하나님의 행위들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는 것에 유의하며 성경신학에 대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 우리는 성경신학이란 공식적인 학과가 여러 세기에 걸쳐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경신학이 역사와 계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도 살펴보았다.

성경신학은 근세기에 들어 복음주의자들이 신학을 수립해 온 가장 영향력 있는 방법을 대표한다. 이러한 성경 접근에 대하여 계속 연구해 가며 우리는 성경신학이 신학에 대하여 더 전통적인 접근 방법들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자주 무시되어 버렸던 많은 통찰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잘 형성된 성경신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철저히 탐구하는 일과 성경에 충실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는 신학을 형성하는 일에 도움을 줄 것이다.

VI. 연구의 길잡이 (Study Guide)

A. 복습을 위한 질문들 (Review Questions)

1. "역사적 분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라.
2. 성경이 역사상의 하나님의 행위들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3. 사실적 역사 분석과 신학적 역사 분석이란 서로 다른 신학적 반성의 경향이 어떻게 나란히 함께 가는가? 그것들의 주된 관심사는 어떻게 다른가?
4. 성경신학이란 공식적 학문을 낳게 된 17 세기에 있었던 문화적 변화들은 무엇인가?
5. 비평주의적 성경신학은 현대 신학을 위해 어떤 식으로 성경을 사용하는가?
6. 현대 기독교인들이 성경신학을 통하여 성경을 접근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7. 복음주의적 신학자들은 역사와 계시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8. "행위 계시"를 정의하고 설명하라. 성경을 사용하여 그것을 변호하라.
9. "말씀 계시"를 정의하고 설명하라. "말씀 계시"가 필수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10. 성경신학에서 행위 계시와 말씀 계시는 어떤 식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는가?
11. 우리가 성경신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땅 끝까지 확장하심으로써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실 과정으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2. 어떻게 역사의 여러 단계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왜 성경신학이 성경의 역사의 유기적 성격을 강조하는가?

B. 적용을 위한 질문들 (Application Questions)

1. 성경신학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설교를 작성하거나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2. 당신은 역사적 분석, 문학적 분석, 주제적 분석 중에서 어떤 분석을 가장 자주 하는가?
3. 당신이 다른 종류의 분석들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면 당신의 성경 연구는 어떻게 향상될 수 있는가?
4. 이 강의는 성경이 역사상의 하나님의 행위들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들에 대한 신학적 의미도 준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나 신학적인 의미를 줄 수 있는가?
5.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사역에서 성경의 역사의 신빙성에 대한 어떤 도전들에 직면해 있는가? 당신은 이런 도전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6. 행위 계시와 말씀 계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다 잘 해석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7.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란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삶을 살고 사역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
8. 우리는 성경 역사의 최하점들과 최고점들로부터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가?
9. 계시의 유기적 발전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우리 자신의 사역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가?
10. 이 강의를 통하여 당신이 배운 가장 중요한 통찰은 무엇인가?